

지역문화예술회관 운영, 지역밀착형이 바람직하다

이철순 예술의전당 교육사업팀장

culture'art
지역문화예술회관이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착할 때, 이는 매년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예능계는 물론이고 지역의 젊은 우수인력의 수급처가 될 것이고 운영전문화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지역문화예술회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긍정적 태도가 필요하다.

2005년 10월 19일, 예술의전당을 찾은 관람객은 귀가 호사한 날이었다. 혼치않은 비올라 독주가인 유리 바쉬매트가 모스크바 솔로리스트를 이끌고 매우 품격있고 정갈한 음악을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날 성남아트센터에서는 장영주의 협연이 있었다.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런던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의 연주였다. 장영주는 17일과 20일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협연을 가졌다. 19일 부산문화회관에서는 러시아 타타르국립교향악단의 연주가 있었고,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는 재미 원로 음악가인 윤기선 피아노 협연이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열렸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남도소리 상설무대 '하늘 땅 풍물놀이'를 공연하였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꿈을 키우는 음악회'가 있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19일은 휴관이었고, 20일에는 백건우가 협연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었다. 백건우 협연은 이에 앞서 18일에 예술의전당에서도 있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휴관이었다.

19일을 전후로 한 광역시 중심의 문화예술회관 일정을 열거한 것은 이들 광역시·도 문화예술회관의 일정 사이에 무엇인가 공연예술 현상을 설명해줄 여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19일을 전후한 일정으로 공연 현상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인 줄 알지만 이들 공연일정은 1) 동일한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의 공연장에서 열리고 있고, 2)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양분해서 공연되던 관행에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 성남아트센터가 가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3) 대구와 광주, 경기도는 위와는 무관한 일정임을 알 수 있다. 공연 일정을 길게 잡아 좀 더 충실히 검토한다면 더 많은 공연 시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우수프

블록버스터형 공연은 유치가 어려워서 그렇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유치가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정 주제 하의 깊이 있는 음악회가 열릴 수 있다면, 이 공연을 기획하는 극장들의 노력과 모험을 높이 사야 할 것이다.

Clearance zone

로그로 공동제작사업'과 '전국망 사업'을 시행한 경험에 의하면, 프로그램 하나를 전국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순회공연 하고자 했을 때, 참여 기관을 5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고양덕양어울림극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 새로 문을 연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활기를 더함으로써 서울 중심의 공연시장에서 전국 시장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공연자장(Clearance zone)의 효력

수도권의 문화회관은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장(磁場)으로 인하여 더 멀리 떨어진 중소도시의 문화회관 운영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떤 공연의 경우 예술의전당을 찾는 관객은 천안, 청주를 넘어 대전, 심지어는 부산, 제주에까지 이른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공연을 멀리하는 많은 다수와는 달리 일부 관객은 천리를 마다하고 찾아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 공연을 보고 오는 극히 일부의 관객이 있기도 하다. 관객을 끌어들이는 공연자장은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다. 이런 가운데 관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지척이어서 이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문화회관이 안양, 과천,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문화회관이다.

그 자장을 벗어나 경쟁관계에 서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곳이 성남아트센터인 듯싶다.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과의 경쟁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현대의 관람객들은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내게 맞는 공연을 찾아다니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공연을 한다면 관객의 호응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화된 관객층은 내가 선호하는 작곡가의 연주회, 내가 좋아하는 연주가의 연주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수도권의 문화회관들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만할 것이다. 관람객이 전문화되고 동류집단 층 형성 현상을 보인 것은 예술의전당이 기획하고 임현정이 지휘한 부천 필의 말러 시리즈 아닌가 싶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 걸쳐 연주된 말러교향곡 전곡 연주회는 기획을 처음 시도하였을 때만하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였다. 매표를 걱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말러 교향곡 전곡연주회는 예상을 깨고 연주를 거듭할수록 열기를 더해갔다. 점차로 고조되는 말러 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지금은 부르크너 교향곡 연주 붐이 그 뒤를 잇고 있는 듯하다. 애호층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말러나 부르크너 작품 연주회가 고정 관람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음악 애호층이 그만큼 두툼하게 형성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1999년부터 시작된 강중모의 바흐 피아노 전곡 연주회와 김대진의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전곡 연주회도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 한 예일 것이다. 이런 현상은 문화계의 좋

은 징조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관객층이 두터워지고 있고, 음악적 깊이도 더해가고 있어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청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주제의 공연을 찾거나 블록버스터형 공연을 찾는 관객은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마니아층이다. 이들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이 운영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블록버스터형 공연은 유치가 어려워서 그렇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유치가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정 주제 하의 깊이 있는 음악회가 열릴 수 있다면, 그 만큼 그 지역의 예술적 수용의 깊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들 공연을 기획하는 극장들의 노력과 모험을 높이 사야 할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자장의 중첩은 마니아층의 이동관람을 낳는다. 이런 현상은 지역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 교육적 성격의 프로그램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 소외를 최소화할 때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고양시키고자 건립된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지역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이다.

대형공연이나 유명인 출연 공연을 선호하는 현실

서울에 와서까지 음악회를 듣는 열정까지는 없지만 가까이서 열린다면 기꺼이 찾은 우호적 관람객들에 알맞은 공연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블록 버스터형의 공연일까? 전문 마니아층이 대상인 음악회일까? 아예 관심조차 없

는 일반 대중들은 문예회관 관람객 대상이 아니라고 그 대로 방치해야 할 것인가? 그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마케팅 이론에 의하면 열성 고객에게 투자하여 보다 자주 반복이용하도록 하는 마케팅이 관심조차 없는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무관심한 관객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문화회관 운영자들은 매표가 쉬운 대형공연이나 유명인 출연 공연을 선호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볼 일일 것이다.

지역문화회관 운영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1)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2) 지역 문화계의 분위기, 3) 지역 유지의 협조정도, 4) 관장의 리더십, 5) 전문가 운영여부가 그것이다. 운영예산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므로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의해 운영활성화를 기한 문예회관을 든다면 김천문화예술회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김천문화예술회관은 개관한지 불과 10년도 안된 문예회관이다. 김천문화예술회관의 근무자는 시장의 문화회관에 대한 관심 덕에 중요 보직을 맡을 수 있었고, 승진하여 관장으로 되돌아 왔다. 예산도 도시 규모, 극장 규모에 비하거나 다른 지역 문예회관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 이시의 시장은 좀 유별나다. 공연 전에 하는 리허설에 나타나고, 공연을 직접 보며, 공연을 보고나서는 기념촬영을 하자고 무대 뒤로 찾아오기까지 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보인 시장 덕분인지 김천문화예술회관은 개관



왼쪽 · 의정부예술의전당 / 오른쪽 · 김천문화예술회관



문화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인 지금, 교육계의 참여에 의한 극장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런 조정과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역문화발전의 큰 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문화회관의 법적 지위는 운영 효율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Region Culture

한 지 불과 2년 뒤인 지난 2002년 전국문화기반 평가에서 중소도시 규모 극장으로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관장의 리더십이 극장운영 활성화의 결정적 동기가 된 경우는 순천문화예술회관을 들 수 있다. 갓 승진한 사무관인 M관장은 문예회관 근무가 적성에 맞았다. 그를 관장으로 부임한 시장은 그의 문화적 관심과 소양, 그리고 갓 승진하여 첫 기관장을 맡은 젊은 사무관의 패기와 열정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M관장은 오페라〈춘희〉를 자체 제작하겠다는 만용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구 30만의 중소도시인 순천에서 오페라를 자체 제작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반주를 할 오케스트라도 없고, 오페라는 주역 가수를 보고 온다고 할 만큼 주역가수가 누구냐에 따라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널리 알려진 성악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만만치 않은 무대 제작비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러나 M관장은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그것도 10회 공연을 하였다. 한 작품을 10회 연속 공연한 것은 국립오페라단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거의 전회가 매진된 이 공연은 지역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관장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한편 공연자장 설정을 적절히 해 운영에 성공한 예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클리어런스 존

은 한 영화관이 관객으로 포용하는 지역범위를 뜻한다.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던 오페라〈춘희〉의 클리어런스 존은 인근의 광양에서 광주를 지나 대전까지였다.

순천문화예술회관이 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기회로 영역을 넓게 잡았다면,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의정부 시민만을 관람대상으로 하는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개관 초부터 클리어런스 존을 넓게 잡은 경우이다. 서울 북부시민의 서울에서의 문화향유 기회 부족에 주목하였다. 홍보마케팅 대상을 서울 북부시민까지 넓혔던 것이다. 그리고 주제가 있는 기획과 장르 개척으로 수도권문화예술회관 중 주목받는 문예회관으로 급부상하였다. 특화를 통해 독자적 위상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다.

지역문화예술회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공공 문화부분은 봄을 맞은 듯하다. 정부예산에서 문화부분예산이 1%를 넘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짓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수십 개에 이른다. 하드웨어인 회관 건립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어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문화산업에서 문화교육으로까지 확장된 듯하다. 문화예술 교육이 문화발전과 국가 건강성의 토대가 되는 장기 과제라는 점에서 문화교육진흥원을 설치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개편되어 '민간' 시대를 열었다. 중앙정부인 문화부 예산이

1개 아트센터인 링컨센터 1년 예산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십 수 년 전에 비하면, 정부예산이 1%라는 것은 예산 측면만으로 본다면 선진국 수준이다. 이런 배경 하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고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민간참여의 길이 열리고 창의적 사회구현이 가능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예술회관이 지역 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운영은 소홀하였다. 지역 예술계와 지역 경제계와도 거리가 멀었다.

일본은 전국에 1,500개 이상의 공공문화시설을 건립하고 공무원이 직접 운영했으나 운영난에 봉착했다. 운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재단법인으로 운영 체제를 바꾼 뒤에 극장이 되살아났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지역 문화회관의 운영은 필수적이다. 영국의 지역 극장은 시장, 상공회의소 의장, 지역 판사, 지역 교육장, 예술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에서 선정한 극장 운영 책임자가 극장장이 된다. 극장장은 이사회에 운영책임을 진다.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지역 문화회관이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이와 유사하다. 더욱이 문화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인 지금, 교육계의 참여에 의한 극장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런 조정과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역문화발전의 큰 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문화회관의 법적 지위는 운영 효율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현

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문화회관은 공무원 직영, 재단법인 설립운영(문화재단 포함), 시설관리공단 직영, 민간위탁운영 등으로 대별된다. 운영조직의 법적 지위가 다르고 형태가 다른 만큼 운영활성화의 정도도 다르다.

이를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법인 형태의 운영이 어떤가 하는 것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극장은 '예술의전당'이 유일하다. 문화예술위원회 법에 "이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한다"고 정하여 안정적인 법적 지위가 확보되었고 운영전문화를 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근무 여건도 오늘의 예술의전당이 있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

문화회관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추세이다. 공모제를 통하여 관장을 전문가로 영입하고 운영 직원 채용도 전문가를 특채하거나 직원을 공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된 지금이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충무아트홀, 안양문예회관, 고양덕양어울림극장, 성남아트센터가 관장을 공채하였거나 영입하였다. 올 11월에 개관하는 김해문화예술회관 역시 그러하다.

지역문화예술회관이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착할 때에는 매년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예능계는 물론이고, 지역의 젊은 우수인력의 수급처가 될 것이고 운영전문화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매년 배출되는 예능계 인력이 다들 어디로 가는가, 모두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 모두 교육자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직업으로서 선호도가 높은 직종이 교직이고



왼쪽 · 성남아트센터 / 오른쪽 · 순천문화예술회관



지역문화예술회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긍정적 태도가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을 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참여로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지역문화예술회관 운영의 가늠자일 것이다.

Participation



왼쪽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오른쪽 · 충무아트홀



개인 레슨이었지만, 이들 직종은 포화상태다. 더구나 직업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큼 힘든 역경을 거쳐야 예술가로 인정받는가는 익히 우리가 아는 바다. 그렇다고 성공한 예술가로 보장받지도 못한다. 개인교습이나, 음악 미술학원 운영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최근 이 분야 종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어려움이다. 이런 가운데 안정적 직장이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술기관에 근무한다는 것이 매력적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회관이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 매년 문화예술 기관이 창출하는 직업의 친구가 많지 않은 것이다. 지역문

화예술회관이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문화를 기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가 이들에게 직업적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 극장운영의 활성화는 이들이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의지를 발산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은 예술의전당이나 엘지아트센터, 그리고 몇몇 지방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성과가 말해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한, 지역문화회관의 법적지위를 제언한다.

끝으로 지역문화예술회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긍정적 태도가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을 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참여로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지역문화예술회관 운영의 가늠자일 것이다. ●●●